



주권반환 이후 중국의 대 홍콩 경제외교

2018. 2. 8

제주한라대학교 김 용 민

Page • 1

문제 제기 홍콩과 중국은 一國兩制

❖ 일국양제 탄생 배경

- (1) 중국 : 홍콩에 대한 주권 확보
- (2) 영국 : 홍콩반환 이후에도 영국과 서구자본이 갖춰놓은 홍콩의
기본질서를 최대한 유지

❖ 홍콩 주권반환 20년 경과

홍콩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통합하였으나, 홍콩인과 중국인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Page • 2

논문의 목적

“중국인?” “홍콩의 중국인?” “중국의 홍콩인?” “홍콩인?”

홍콩대학교 설문조사 (연 2회)

중국인!

18.6%
(1997)

14.5%
(2017)

❖ 논문의 목적

중국이 홍콩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으로의 동화(同化)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살펴보고, 그 수단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나를 검토

Page • 3

경제외교 Economic Statecraft or Economic Diplomacy

❖ 중국은 홍콩의 외교대상이 아니다?

‘외교’란 본질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정책, 협상, 과정 등을 다룬다. But,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지 주권국가가 아니다.

❖ ‘경제외교’라는 단어가 학술적으로 그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 (1) 국내에는 학술논문이나 학술서적 자체가 많지 않다.
- (2) 국내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쓰인다.

예)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양자경제외교국

- (3) 중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사용된다.

Page • 4

경제외교

❖ 중국이 홍콩을 국내 다른 지역과 똑같이 다루지 않는다!

홍콩과 중국이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 홍콩은 이른바 중국의 '경제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경제외교'를 폭넓게 사용한다!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국에 긍정적(positive) 또는 부정적(negative) 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위 (Baldwin, 1985; 서승원, 2012).

경제 원조	경제 제재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 무역협정, 최혜국대우, 수출입보조, 자원공동개발, 차관제공, 투자기업 우대 등	국제법상의 제재(sanctions), 통상제한, 수출입규제, 자산동결, 원조삭감 등

Page • 5

'반환' 이전 중국과 홍콩의 경제교류

❖ 19C중엽 ~ 1940년대 : 중개무역(entrepot trade) 도시로 발전

- (1) 지리적 위치, 정치적 안정, 상대적으로 발전된 항만시설 등
- (2) 홍콩을 통치하던 영국을 비롯하던 서방세력에 의해 남중국의 관문 역할 부여

❖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본토와 홍콩의 연계 약화

한국전쟁에 영국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유엔의 대중국 전략상품 교역 금지로 홍콩과 중국의 무역거래는 거의 중단

Page • 6

‘반환’ 이전 중국과 홍콩의 경제교류

❖ 1950대 중반 이후 산업화(공업화) 매진

- (1) 중국대륙에서 건너온 풍부한 노동력과 일정한 기술력을 이용해 섬유, 화학, 전자공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 발전
- (2) 19세기부터 발전되어온 금융과 물류서비스는 홍콩이 세계시장에 자신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1950년 전후 약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홍콩으로 유입

그러나, 곧이어 홍콩과 중국 본토간의 경계가 다시 봉쇄된 이후, 중국 본토인과 홍콩인의 왕래는 크게 감소

❖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며 홍콩과 중국의 금융거래는 거의 중단

동남아시아 화교들이 사회주의국가로 변모한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송금할 때만 홍콩의 금융시장을 이용

Page • 7

‘반환’ 이전 중국과 홍콩의 경제교류

❖ 중국이 다시 홍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덩샤오핑 집권 직후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부터

낙후한 중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선진 기술 이전, 외화 획득, 고용 창출이 필요 → 홍콩에 인접한 선전을 비롯해 주하이, 산터우, 샤먼, 하이난이 경제특구로 지정

❖ 홍콩은 가공무역 중심의 공업화를 활발히 전개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홍콩경제의 성장과 함께 지가상승, 물가상승, 임금상승이 이어지며, 홍콩에서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 경제특구의 건설은 새로운 활로를 찾던 홍콩의 기업가들의 이해와도 일치 “前店後廠”

Page • 8

'반환' 이전 중국과 홍콩의 경제교류

❖ 1982년, 대처총리 방중, 홍콩반환협상 개시

- (1) 중국은 주권의 이양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홍콩의 기존 경제제도와 생활양식, 재산권, 독립적인 관세권, 외국과의 경제교류 등 홍콩의 경제 시스템을 최소 50년간 인정하는데 합의
- (2) 중국으로서는 홍콩의 경제질서를 흔들어 홍콩내의 자본과 인재의 유출 막고 홍콩사회 안정 필요

❖ 1984년 9월, '중영 공동선언'으로 홍콩 주권반환 협상 일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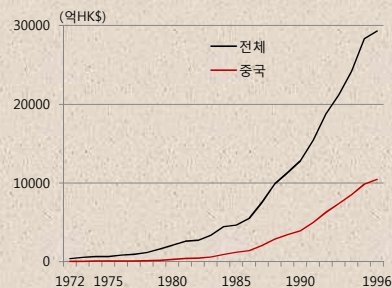
Page • 9

'반환' 이전 중국과 홍콩의 경제교류

❖ 1980년대 초 ~ 1997년,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더욱 긴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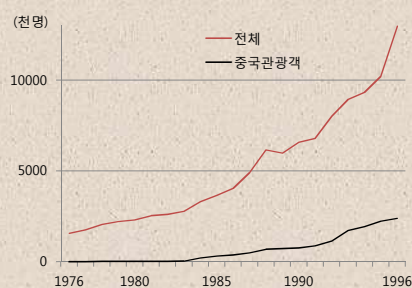
1980년대 초반 이후, 양 지역간 인적 물적 교류 크게 확대

<반환 전 홍콩의 대 중국 무역 추이(1976~1996)>



자료 : 홍콩통계청

<반환 전 홍콩방문 중국인 수 추이(1976~1996)>



자료 : HKTb

Page • 10

반환 전 50년 경제외교(?)

❖ 1949년 이후 중국과 홍콩의 경제는 단절 → 재결합의 단계로 발전

- (1) 마오쩌둥 시기 대외문제에서 중국의 관심사는 미국·소련과의 관계 설정,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 (2) 1970년대 후반 덩소평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 개방으로 중국과 홍콩은 다시 결합

❖ 두 지역의 경제적 분업은 상호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

경제특구의 설치와 홍콩과의 협력은 외자도입·기술도입을 통해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려던 중국의 목적과 제조업의 중국 본토 이전을 통한 원가절감과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홍콩의 이해가 결합된 결과

반환 전 50년 경제외교(?)

❖ 홍콩에 대한 주권회복이지 경제외교로 보기는 어려워

중국이 정치적 힘을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얻어내려 했다거나, 홍콩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는 관점으로 볼 수는 없어

<참고> 경제특구의 설립과 운영을 '일국양제'의 표본으로 삼고, 구체적인 정책변화를 통해서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주민들에게 중국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설명 (박정동, 1993)

중-홍콩 CEPA 경제외교의 첫걸음

❖ 홍콩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중-홍콩CEPA 체결

- (1) 1997년 말 폭발한 아시아 금융위기, 미국의 '9.11사건', '사스(SARS)'
→ 역대 최고의 실업률(8.7%)
- (2) 중국정부의 압력에 의해 통과된 '반국가전복법' 등에 대한 반발로,
2003년 7월 1일 홍콩반환 6주년 기념일에 약 50만 명의 홍콩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

< 중국과 홍콩의 GDP 비교 >

(단위 : 억US\$, 배)

	1978	1997	2003	2014
홍콩GDP (A)	183	1,774	1,614	2,915
중국GDP (B)	2,185	9,616	16,602	104,834
홍콩의 크기 (B/A)	11.9	5.4	10.3	36.0

자료 : 홍콩통계처

Page • 13

중-홍콩 CEPA 경제외교의 첫걸음

❖ 중-홍콩 CEPA로 홍콩 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기 마련

- (1) 발효 즉시 273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의 관세가 철폐
- (2) 금융, 법률, 의료, 경영 컨설팅 등 17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이
WTO 가입 시 합의한 일정보다 앞당겨 개방에 합의
- (3) 통관, 검역 등 양 지역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확대 합의

< 중-홍콩 CEPA 체결 경과 >

	내 용
2003.6	중-홍콩 CEPA 체결
2004~2013	중-홍콩 CEPA 보충협정 1~10 체결
2014.12	<광둥-홍콩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관한 협정> 체결
2015.11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2017.6	<투자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자료 : 필자 정리

Page • 14

중-홍콩 CEPA 효과

❖ 중-홍콩 CEPA로 양 지역간 상품, 서비스무역 크게 증가

- (1) 2012년부터 홍콩의 무역총액에서 對중국 무역 비중 50% 초과
- (2) 홍콩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시장 개방 효과가 더욱 분명
- (3) 중-홍콩 CEPA 체결로 두 지역간 서비스무역의 상호보완성과 경쟁력 강화
→ 홍콩은 관광,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중국은 운수, 통신, 컴퓨터 관련 서비스에서 경쟁력 우위 나타내 (毛艷華 & 肖延兵, 2013)

< 홍콩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액 추이(1997~2015)>

(단위 : 억HK\$)

	1997	2003	2010	2013	2014	2015
대중수출	404	692	1,856	3,172	3,217	3,108
수출총액	2,266	2,564	6,156	7,821	8,001	7,808
비중(%)	17.8	27.0	30.1	40.6	40.2	39.8

Page • 15

자료 : 홍콩통계처

중-홍콩 CEPA 효과

❖ 홍콩 개별여행 허용으로, 홍콩 방문 중국인 폭발적으로 증가

- (1) 2003년 7월 28일 광둥성의 둥관, 포산, 중관, 장먼 등 4개 도시 주민을 필두로 홍콩 개별여행을 허용
- (2) 2015년 현재, 광둥성 전역을 포함해 중국의 주요 49개 도시 주민들은 자유로운 홍콩 여행 가능
- (3) 관광객의 급증으로 홍콩의 내수 진작, 취업 상황 크게 개선

< 홍콩 방문 중국 관광객수 추이(1997~2016)>

(단위 : 만 명)

	1997	2002	2003	2010	2014	2015	2016
중국인	236	683	847	2,268	4,725	4,584	4,278
총방문객	1,127	1,657	1,554	3,603	6,084	5,931	5,665
비중(%)	20.9	41.2	54.5	62.9	77.7	77.3	75.5

Page • 16

자료 : 홍콩통계처

중-홍콩 CEPA 중국정부의 주도적 역할

❖ 중-홍콩CEPA 체결로 중국 대륙과 홍콩의 교류 역사에서 최초로 중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발휘되기 시작

"중앙정부와 홍콩의 CEPA 체결은 '일국양제' 원칙과 WTO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특수한 제도입니다. 주권국가인 중국과 독립관세구역인 홍콩 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 무역관계를 반영하였으며,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와 중국 인민의 관심과 지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중-홍콩 CEPA가 홍콩의 공상계에 더욱 큰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오고, 홍콩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3년 중-홍콩CEPA 체결의식에 참여한 원자바오 전 총리의 연설 내용 중 일부)

Page • 17

중국과 홍콩의 금융통합

❖ 홍콩은 오랜 역사를 가진 금융센터

- ✓ 19세기 중반부터 주식시장이 형성, HSBC가 1865년에 홍콩에서 설립
- ✓ 20세기 초반에도 중국 본토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홍콩은 중국과 서양을 잇는 금융센터의 역할을 담당
- ✓ 중국 대륙의 공산정권 수립으로 홍콩과 중국의 금융 교류는 약화

❖ 영국과의 반환협상 과정에서 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기능 인정

- ✓ 1984년, '중영연합성명' :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역할 유지, 발전 합의
- ✓ 1990년, <홍콩기본법> 제109조~제112조
: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지위 유지를 위한 경제적, 법적 환경 제공 규정

❖ 중-홍콩 CEPA를 통한 합의

- ✓ 홍콩 은행들의 중국 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보험업무, 위안화 업무, 펀드업무, 증권업무, 소비자금융업무 등으로 금융시장 개방 범위 확대

Page • 18

중국과 홍콩의 금융통합 위안화 국제화

❖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은 금융의 측면에서 홍콩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홍콩과 중국을 묶는 중요한 계기

- ✓ 홍콩에서 최초로 개인의 위안화 예금, 송금, 환전 시작하였으며, 위안화 표시 채권(딤섬본드)을 발행하기 시작
- ✓ 2009년부터는 상하이 및 광둥성 4개 도시와 홍콩간의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시작하였으며, 2010년대 들어서며 홍콩이 위안화를 이용한 무역거래, 위안화 예금과 대출, 위안화표시 금융상품의 출시

< 홍콩 위안화 비즈니스의 양적 발전(2010~201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위안화 예금(억위안)	3,149	5,885	6,030	8,605	10,036	8,511
위안화 대출잔액(억위안)	18	308	790	1,156	1,880	2,974
위안화 무역결제(억위안)	3,692	19,145	26,325	38,410	62,583	68,000
딤섬본드 발행잔액(억위안)	630	1,470	2,370	3,100	3,800	3,680
위안화 취급기관 수(개)	77	133	139	146	149	145

Page • 19

자료 : HKMA

중국과 홍콩의 금융통합 위안화 국제화

❖ 홍콩이 위안화 역외센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의 역할은 결정적

" 두지역의 경제협력과 발전으로 위안화 역외센터의 비즈니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홍콩에서 선도적으로 위안화 역외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것을 언제나 지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위안화 역외센터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은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 제고에도 유리하고, 홍콩과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홍콩을 방문한 리커창 총리의 '12.5규획 금융협력발전포럼' 연설 중 일부)

" 중앙정부는 행정장관과 특별행정구정부가 법에 따라 홍콩을 다스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을 흔들림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또 '일대일로' 건설,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위안화 국제화 등 중요한 발전전략 추진에서 홍콩의 이점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017년 7월 홍콩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홍콩반환 20주년 기념대회 연설 중 일부)

Page • 20

지역 통합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 ❖ 1990년대 후반부터 주강삼각주지역은 중국의 3대 경제권으로 자리매김
 - ✓ 홍콩과 선전, 둥관, 광저우 등 인접 중국 광둥성의 주요 도시들이 투자와 분업을 통한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
- ❖ 2015년,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 건설 추진 목표 제시
 - ✓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추진 포함
 - ✓ 17.4월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에서 '국가급 신규 개발사업'으로 확정
: 뉴욕, 도쿄,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규모 도시지역으로 육성 전략
- ❖ 광둥,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는 인프라 건설에도 박차
 - ✓ 강주아오 대교(36.5Km) 2018년 말 완공 예정
 - ✓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도 2018년 하반기 완공 예정

Page • 21

새로운 중국-홍콩 관계 경제외교로 접근

- ❖ 주요 계기마다 중국의 주요 지도자가 홍콩과 중국의 통합 언급
 - ✓ 중-홍콩 CEPA 체결식, 주권반환 기념일 등의 계기에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육성으로 홍콩의 경제발전 의제와 함께 '일국양제', 홍콩과 중국의 통합 등의 중요성 확인
- ❖ 경제 통합에서 지역 통합으로 발전 기대
 - ✓ 공업과 서비스업의 분업(前店後廠)에서 발전한 홍콩과 마카오 광둥성의 협력 → 세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도시권으로 육성 계획
- ❖ 중국의 경제발전 장기 전략에 홍콩의 중요성, 기능, 지원 등 확대
 - ✓ 각 시기별 중국의 발전전략에서, 홍콩은 '방임', '지위 확인' 수준에서 '적극 개입', '육성', '지원'으로 확대 언급

Page • 22

새로운 중국-홍콩 관계 장기 발전 전략

< 중국의 5개년 계획 중 홍콩관련 언급(8.5계획~11.5계획)>

	주요 내용
8.5계획	• 주권 반환 준비, 홍콩과 마카오의 안정과 번영
9.5계획	• 주권반환 후, 현 제도 50년 불변, 특별행정구 설치 • 홍콩의 금융, 무역, 해운중심 지위 유지, 독립 관세구역 설치
10.5계획	•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 지원 • 홍콩의 국제금융, 무역, 해운중심 발전, 중국과의 경제협력·교류 강화
11.5계획	• 경제, 무역, 과학, 교육, 문화, 위생, 체육 등 영역에서의 교류 확대 • 중-홍콩 CEPA 지속 실행 • 홍콩의 서비스업(금융, 물류, 여행, 컨설팅) 발전 지원 • 홍콩의 국제금융, 무역, 해운중심 지위 유지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史綱

새로운 중국-홍콩 관계 장기 발전 전략

< 중국의 5개년 계획 중 홍콩관련 언급(12.5계획~13.5계획)>

	주요 내용
12.5계획	• 홍콩의 금융, 해운, 물류, 여행, 전문서비스,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전 지원 • 홍콩의 역외위안화중심, 국제자산관리중심 설립 지원, 고부가가치화물 보관·관리센터, 역내 배송센터 발전 지원 • 홍콩의 국제금융, 무역, 해운중심 지위 강화 • 홍콩의 환경보호,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인종, 과학기술, 문화 등 산업 혁신 지원, 중국과의 협력 영역과 서비스 범위 확대 • 홍콩의 금융시스템을 필두로 주강삼각주 금융협력구 건설 • 현대적인 제조업·서비스·물류 기지 건설, 주강삼각주지역과 홍콩간의 교통운수 시스템 개선
13.5계획	• 홍콩의 국제금융, 해운, 무역중심 지위 강화, 홍콩의 역외위안화 클러스터, 국제자산관리중심 기능 강화 • 파이낸싱, 비즈니스, 물류, 전문서비스 등 첨단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혁신·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 지원 • 아태지역 법률·분쟁해결 서비스센터 건설 지원 • '일대일로' 건설 참여 지원, 중국·홍콩기업 협력 해외진출 지원 • 중-홍콩CEPA 업그레이드를 통한 협력 강화, 양 지역 금융협력 강화 • 사회, 민생, 교육, 문화, 환경보호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 심화 • 홍콩 중소기업청년의 중국진출 지원, 혁신·과학기술산업 협력 지원 • 아태지역 법률·분쟁해결 서비스센터 건설 지원 • 범주강삼각주경제권 건설, 첸하이·난샤·형진과 홍콩과의 협력 확대, 광둥·홍콩·마카오의 대만구(大灣區) 건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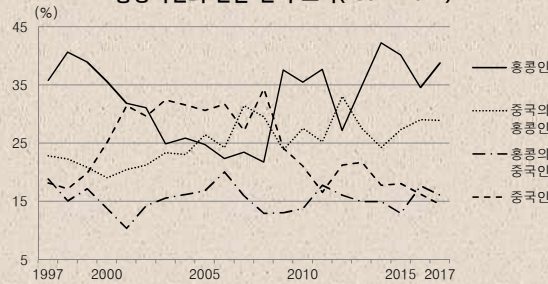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史綱

중국과 홍콩의 통합 나는 중국인 인가?

❖ 중국과의 경제통합 정도와 '중국인' 정체성 수준 불일치

- ✓ 자신을 '중국인'이라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던 2008년 34.4%로 가장 높았으나, 2017년에는 17.4%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

< 홍콩시민의 신분 인식 조사(1997~2017) >



Page • 25

자료 : 홍콩대학교 민의조사프로그램

중국과 홍콩의 통합 무엇을 위한 통합?

❖ 홍콩의 빈부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

- ✓ 1인당 GDP는 US\$42,000를 넘지만, 최저 임금은 US\$4 수준
- ✓ 지니계수는 꾸준히 상승해 2016년에는 0.539 기록

❖ 중국과 경제통합의 과실은 분배되지 않고

- ✓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삶의 불편함, 문화적 이질성,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만 부각

< 홍콩의 지니계수(1981~2016) >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지니계수	0.451	0.453	0.476	0.518	0.525	0.533	0.537	0.539

자료 : 홍콩통계청

Page • 26

중국과 홍콩의 통합 성공적인가?



Page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 지난 20여 년간 한중 양국의 경제도 급속도로 통합 진행
 -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중간의 무역, 투자 증가로 인한 과실을 분배하는 노력 필요
 - ✓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
- ❖ 중국의 국력(경제력)이 커지면서 경제외교 본격화
 - ✓ 2000년 마늘분쟁, 2005년 김치파동이 일시적, 비정치적 분쟁이었다면, '사드사태'는 넓은 의미에서 중국의 경제제재로,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국에 부정적(negative) 영향을 끼치려는 분명한 행위
- ❖ 향후 이와 유사한 중국의 경제외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Page • 28

谢谢！

Page • 29